

강원도정 소식

18개 시군 도로명주소 고시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강원도는 7월29일 18개 시군에서 도로명주소 동시 고시를 실시하고 법정주소로 확정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개별건물 29만건은 시군의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고시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우리나라의 법적주소로 확정되는데, 정부에서는 도입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공공기관의 공적장부와 민간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에 대해 주소전환을 실시하고, 전면사용되는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7월29일 이후에 전입하는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 도로명부서에 전담창구를 신설해 고시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정/가/소/식

권성동 의원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에

○... 한나라당 강원도당위원장으로 권성동 국회의원(사진)이 선출됐다.

한나라당 도당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춘천 베어스관광호텔 소양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일 후보로 등록한 권성동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나라당 도당 운영위원회는 새로 선출된 권성동 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원도 발전과 한나라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제반 준수 사항의 실천을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음은 물론 정부예산 확보 및 법률지원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흑자·경제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해 강원발전 100년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도당 춘천 산사태 논평 발표

○...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27일 춘천시 신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당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주당 도당은 논평에서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하대학교 아이디어뱅크 동아리 학생과 지역 주민 등 35명이 매몰되고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했다"며 "사망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들에게도 가슴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정부와 강원도, 춘천시는 이번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피해자 및 유족들께서 두 번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순환골재 사용으로 예산절감

고성군, 한국건설자원협회 주관 공모전서 우수기관 선정

고성군이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주관한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정부포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순환골재·순환골재 2차 제품 등의 활용실적이 있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주요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활

용사례를 공모했다.

1차 심사 결과 13개 기관 및 자치단체가 선정돼 지난달 22일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통한 2차 심사 결과 3개 기관과 3개 자치단체가 선발돼 각각 국무총리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 국토해양장관 표창에 선정됐다.

고성군은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군도4

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건의 공사에 순환골재를 이용해 공사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성공적인 공사 시행을 통해 순환골재를 이용한 재활용 제품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개최된다. 최광호 기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로

국토해양부, 고성군 등 6개 지자체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고성군을 비롯한 도내 6개 자치단체가 역사·문화·자연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성군을 비롯해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536.94km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은 전국에서 9번째로 지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정·승인된 개발계획이다.

이에따라 3개부문 18개 사업에 1조 2,120억원이 투자되며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 4,073억이 국비로 지원된다. 민자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등 24개 법률이 의제처리돼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됐다.

설악단오문화권은 설악산 인근의 자연관광자원과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관광·문화 중심지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강원도지사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두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남과북, 바다와육지, 영동과 영서의 단절을 잇는 네트워크형 연계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3색 생태자원(동해안, DMZ, 설악산)의 생태·환경 가치를 활용해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개발계획의 내용은 역사·문화, 관광, 도로 등 총 3개 부문이다.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조성 등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 부문은 3개 사업에 954억원이 투자된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등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 사업 부문은 5개 사업에

8,076억원이 투자된다. 주문진~옥계간 관광탐방로 조성사업 등 도로 기반시설을 위한 10개 사업에 3,090억원이 투자된다.

시군별 사업비는 △고성군 878억원(국비647, 지방비 208, 민자 23) △강릉시 1,225억원(국비 740, 지방비399, 민자86) △속초시 6,588억원(국비1,273, 지방비360, 민자4,955) △인제군 2,617억원(국비782, 지방비 135, 민자1,700) △양양군 812억원(국비631, 지방비181)이 투자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복원하고, 피서철 우회도로 기능과 해안관광도로 조성 등 자연·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설악단오문화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강력단속

고성군, 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성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관리·감시 여건이 취약한 야간 및 공휴일에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한시적 기획단속은 해변 개장기간인 8월 21일까지 중점관리대상, 민원유발사업장, 개 도축형

위 예상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악취유발사업장 등 총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이상 단속을 하게되며, 특히 환경오염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야간 등에 한정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감시대원 8명을 투입

해 배출시설 인근 지역 및 하천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사전점검에 주력해 자율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결과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사용금지 및 폐쇄조치 등 근절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